

##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단결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추석 전 '9월 위기설'이 뉴스에 나왔고, 중소기업들이 '키코(KICO)'라는 금융상품 때문에 엄청난 환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과연 경제위기가 오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은행들은 극심한 돈가뭄에 시달린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10%로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잘못되면 1,500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주가지수는 곤두박질치고, 2,4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가 있지만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농업 여건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합니다. 비료·농약·사료값에다 면세유값까지 농자재 값은 오를대로 올랐는데, 경기가 계속 침체되면 농산물의 판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악성 농가부채로 고통받는 우리 농민들은 잘못하면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맨 앞에서 맞게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11년 전 IMF 때보다 훨씬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350만 농민들이 강요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농업계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농협법 개정과 같은 중대한 농정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특세 폐지·공공비축제 수매량 축소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이 취해지는데도, 우리 농업계는 결집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어려운 주변 여건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식량주권을 지키는 핵심 부문인 농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농업·농촌·농민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12만 농업경영인과 350만 농민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 15만원 농약값이 아까워, 반이 넘는 나라이 쭉정이가 되도록 방치된 논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를 살 돈이 없어, 쇠마리가 넘는 소들에게 하루 세 끼 여물을 끓여 먹이는 농민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350만 농민 모두가 혹독한 겨울같은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수록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의지, 단결력이 필요합니다. 350만 농민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여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우리의 피땀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동과 창의를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25일, 서울에서 전국농민대회가 열립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먼 옛날의 격언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힘찬 단결과 뼈를 깎는 혁신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은, 지금 여기저와 12만 농업경영인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